

# 오미크론 집단 감염...광주·전남 코로나 하루 300명 넘었다

### 광산구 요양시설서 이틀간 69명 감염...연일 세자릿수 확진 전남, 하루 164명 역대 최다...목포·무안·나주서 연쇄 감염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기록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서는 모두 151명이 신규 확진됐다. 동구 의료기관과 관련해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9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다. 특히 광산구 소재 요양시설에서는 이날 37명이 신규 감염돼 누적 69명을 기록했다.

해당 요양시설은 종사자 등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다. 광주시는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원의 경우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진단 검사 횟수를 늘렸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도 자가격리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유증상자와 접촉자들의 확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는 9일 133명, 10일 176명, 11일 158명 등 하루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하루에 만 여대 최다인 1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연쇄 감염이 속출했다.

전남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유흥시설 등의 연쇄 감염자가 쏟아지는 목포에서 70명, 무안에서 40명이 추가됐다. 나주에서도 16명이 나왔다.

새해들어 11일까지 모두 345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목포의 경우, 숨은 확진자 발견을 위해 시민 전수 검사를 목표로 강도 높은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와 학원, 유흥시설 등을 매개로 확진자

가 걸잡을 수 없이 생겨나자 목포시는 학원 휴업과 사적 모임 최소화를 당부했다. 무안에서는 정계면에 있는 육가공업체에서 이틀째 41명이 집단 감염됐다. 나주에서는 주간보호센터(복지시설)와 영아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전남에선 이날도 오후 2시 현재 4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078명으로 늘었다. 목포 15명, 무안 8명, 해남 6명, 광양 4명, 고흥 2명, 여수·담양·보성·장흥·영암 각 1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위증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700명대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388명이다. 전날보다 1291명 증가했다. 특히 해외유입 사례가 381명이 확인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증증 환자는 749명으로 전날보다 31명 줄었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166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0.91%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2일 오후 광주시청 출산보육과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김부겸 총리 “오미크론 12.5% 점유...곧 우세종 될 것”

### 문대통령, 3차 접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이 3차 접종을 얼마나 완료하느냐가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가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7대 중대 지도자 초청 오찬담화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정돼 가고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아주 큰 고비가 남아 있다”며 “설 연휴와 맞물리며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접종대상자가 3차 접종까지 빨리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유행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많이 진정시킬 수 있었다”며 “이제는 50대 이하의 3차 접종률이 오미크론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만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그나마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불신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종교계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4차 유행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크게 줄었다. 오미크론 고비를 잘 넘기도록 종교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3차 접종 당부” 메시

지를 낸 것은 연속으로 사흘째로, 그만큼 절박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말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후 한달 보름 만에 국내 확진의 12.5%를 점유할 정도로 빠르게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코로나 먹는치료제 ‘게임체인저’ 역할 할까

### 14일부터 투약, 고령·면역저하자 우선...중증화 진행 억제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이달 말 설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3일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새로 당국의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서 미접종자의 접종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해 하루 뒤인 14일부터 바로 처방 및 투약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총 3만1000명분이 1월 중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한국 화이자와 계약한 총 76만2000명분의 치료제 가운데 일부다.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은 향후 3주, 총 21일치로 14일부터 하루 1000명 이상씩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최근의 유행 상황으로 볼 때 초도 물량이 당장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현재 유행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증·중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중 65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가정했을 때 충분한 물량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중앙에서 (치료제 물량의) 30%를 조정 물량으로 확보해 특정 시도에서 수요가 늘면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다만 유행 상황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방역 상황과 바이

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치료제 구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앞선 임상 시험에서 고위험군 경증과 중증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반응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보고됐으나 대부분 경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먹는 치료제는 말 그대로 치료제이기 때문에, 중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는다고 보기는 중증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치료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치료제를 적기에 투여할 수 있다면 최근 8~9%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의 중증화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인 위증증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 대응 여력에도 여유가 생기면서 장기적인 의료 체계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도 이날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안센, 모더나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된 합성항원 백신이다. /연합뉴스

## 당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

### 2월 하루 신규확진 2만~3만명 발생 가능성...14일 조정여부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논의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예측하건대 2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3만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년 상반기에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완화 가능

성에 대해, “오늘도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거리두기 완화 검토도 하기는 했다”면서도 “오미크론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기보다는 지금 안정적으로 (방역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

화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심야극장 등 업종에 따른 미세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6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해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아** **잡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금매 8천만원, 1/31까지  
소유자 직매. 010-3605-5000

<h2>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gt; 9억 급매가 -&gt;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배, 유, 모, 토, 전, 접, 가, 능, 즉, 시, 입, 주, 시, 비, 없, 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li> <li>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li> <li>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li> <li>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li> <li>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li> <li>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li> <li>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li> <li>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li> <li>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li> </ul>		
<h1>010-6670-9800</h1>			